

# 제조원가를 줄여라

글\_ 조완석\_ 공인회계사

회계변경에 대한 고려는 영업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회계변경에 대하여는 기업 회계기준서 제1호에 그 정당성의 판정기준과 주식공시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상당한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되며, 단기적 사안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현실적 상황의 적용에 있어서 많은 주의를 요구한다

D사의 원가구조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던 과정에서의 최대의 고민은 적정한 원가항목의 재구성과 프로젝트별 진행율에 따른 매출액 인식방법의 정립이었다. 이 과정에서 제조원가의 구성항목 중 감가상각비의 비중이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다른 하나는 진행율산정에 대한 내부통제절차의 정립에 대한 문제였다. 이러한 고민에 대하여 이번 글에서는 감가상각비에 대해 고려해 보고 진행율 산정과 관련한 해결방안은 다음 글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 대규모 설비 투자시 감가상각비 처리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었다. 회사는 당기에 새로이 연구소를 설립하면서 대규모 설비투자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그러나 그러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신규개발 품목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가상각비의 대부분이 제조공통비로 분류되어 다른 제품으로 배부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러나 연구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감가상각비를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감가상각비 전체 비중을 줄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다. 그러면 이러한 비용을 개발비로 처리해 자산화시킨 후 시간을 두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결산시점마다 자산화 기준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와 우리는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을 고려하게 되었다. 회사의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은 정률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신규투자분에 대한 매출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률법상각액이

수익비용 대응의 관점에서 회사의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회계변경에 대해선 기업회계기준에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상황이 변할 때마다 회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회계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계의 대원칙 중의 하나인 계속성 및 비교가능성에 대한 공준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회사의 영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 신규투자에 대한 금액적 비중이 기존의 회사의 상각대상 자산가액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용에 대응할 수 있는 매출액이 향후 2년 내에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정당한 회계변경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 전문가적 판단 요구하는 기업회계기준

결과적으로 5년 정률법 상각률이 0.425이고 정액법 상각률이 0.2이므로 상각 첫해년도에 대략 감가상각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다.

회계변경에 대한 고려는 영업환경의 변화 등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회계변경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 그 정당성의 판정기준과 주식공시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상당한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되며, 단기적 사안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항목이므로 현실적 상황의 적용에 있어서 많은 주의를 요구한다. KOVA